

# 지리 학업성취도 · 학습선호도와 성격유형과의 관계: 예술계고 학생을 중심으로

오태훈\* · 박철웅\*\*

##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Geography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Process by Personality Types: the Case of Art High School Student in Gwangju

Tae-Hun Oh\* · Cheolwoong Park\*\*

**요약 :** 이 연구는 예술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지리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및 학습선호도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 개발, 학습지원 및 학업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본 연구는 1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성격유형에 따른 지리교과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였고, 학습선호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분석을 위해 인터뷰 조사가 보완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예술고 학생은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 성격이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MBTI 지표 중에서 감각형(S)-직관형(N)이 학습선호도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격유형이 학업성취도와 학습선호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성격유형을 고려한 수업방식이 진행된다면 지리교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MBTI, 학업성취도, 학습선호도, 성격유형, 감각형(S)-직관형(N).

**Abstract :** This research have attempted to reveal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preference through the case of Art High School student,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strategy, learning assistance and academic counselling. This study utilized 156 students for the MBTI personality type test. The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 score of geography was compared with the student's personality type, and the learning preference of students was complementally examined by interview questionnai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personalities of Art High School student are typical in the type of extroversion, intuition, sensing and perception. The most significantly meaning type of personality was Sensing(S)-Intuition(N) with the comparison of personality type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revealed that personality type in actual affected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preference. This research suggests the fact that if the consideration of personality type is conducted in the instruction course, the interest on the Geography will be increased.

Key Words : MBTI,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preference, Personality type, Sensing(S)-Intuition(N).

\*광주봉선중학교 교사(Teacher, Bongseon Middle School, lemon-soup@daum.net)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arkcw@chonnam.ac.kr)

## I. 서론

지리교육의 중요성과 강조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지역지리의 구성이 강조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모든 단원이 계통지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조철기, 2014),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지리교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한 적절한 교수방법과 절차, 자료의 선택과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의 주된 교육방법은 교사로 하여금 많은 양의 지식을 한정된 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을 수동적이고 방관자적 위치에 놓은 것이었다. 국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칠 것을 표준화하고, 교사는 표준화된 내용을 토대로 최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려 한다(조철기, 2014). 이러한 교육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과 평가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학업성취 중심의 수업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수업 내용과 방식의 선택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Roberts, 1996). 교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리를 이해하고 학습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조철기, 2014). 개인차(성격유형의 차이 등)를 고려한 수업은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생을 수동적 지식의 수용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지식의 창조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지능, 적성, 창의성과 같이 '사고의 방식'에 해당하는 인지적 영역, 그리고 흥미, 자아개념, 성격과 같은 '느낌의 방식'에 해당하는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학업성취도는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의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에서 개인적 차이는 정서, 행동, 인지 등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학습자의 지식구조 구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성격과 학업성취의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으며, 학습자의 성격에 따른 학습효과에 보다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순주, 2013; 한은경·김재철, 2007).

학습자의 성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Allport(1937)는 성격이란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적응의 차이를 나타내는 내부의 심리적, 신체적 체계의 역동적인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Guilford(1959)는 특질이론에서 성격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의 양상이라 말하였다. 즉, 성격(personality)이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지,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장문선 등 역, 2014). 이런 점에 기초하여 성격이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교사의 교수법과 교육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창의와 '인성'을 강조하는 현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성격을 고려한 교수법과 교육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성격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학습자의 성격에 따른 학업에 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활용하고 있다(한은경·김재철, 2007). MBTI 지표는 Jung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하고 있다(장문선 등 역, 2014). Jung(1969)은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내향성(introversion)과 외향성(extraversion)으로 구분하였고, 인간의 기능을 감각(sense),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직관(intuition)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장문선 등 역, 2014). Jung은 내향성과 외향성을 인간의 4가지 기능과 결합하여 8가지의 심리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MBTI는 Jung의 8가지 심리적 유형에 '판단과 인식' 항목이 각각 결합된 것으로 그동안 MBT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장문선 등 역, 2014).

Jung의 심리적 유형에 토대한 Myers-Briggs의 MBTI 분석에 따르면, 학업성취는 심리적 영향에 따른 학습의 결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영재학생들은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며, 사고형에 가깝다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직관형은 예술분야에 재능을 보이고, 감각형은 수사관이나 수공업에 흥미를 가지며, 사고형은 법학, 의학에 관심을 보이고, 감정형은 보육교사, 간호사, 상담사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장문선 등 역, 2014). 이

처럼 성격유형에 따라 능력, 관심, 동기, 흥미 및 욕구가 다르고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진다(이부영, 1998). 이러한 성격유형은 학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외향형 교사는 대화, 집단 프로젝트, 실험적 학습을 선호하고, 내향형 교사는 교사 중심적인 학습 분위기와 토론식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경, 1996).

이처럼 성격유형과 학업은 상관성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와 학습선호도가 성격유형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술계를 사례로 지리교과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선호도는 성격유형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Jung의 심리유형론을 토대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리학에서 학업성취도와 성격유형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에 관심을 두었다(박영미, 2012; 이순주, 2013; 이은주, 2012; 한은경·김재철, 2007).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고등학교는 2,350개이며, 이중 예술계 고등학교는 26개에 불과하다.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성격이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가 예술계라는 특성으로 교과와 성격,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술계 고등학생의 성격유형과 지리교과 학업성취도·학습선호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술 지망생의 성격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런 성격유형과 지리교과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선호도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미시적이지만 소홀히 다루는 예술계 학생들에 대한 지리교과의 관심을 높이고 지리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며, 3장은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며, 4장은 성격유형과 학습선호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며, 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광주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국악, 음악, 한국화, 미술, 무용 전공의 156명의 학생을 사례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전공별 학생은 국악과 30명(19.2%), 음악과 39명(25.0%), 미술과 49명(31.4%), 무용과 38명(24.4%)으로 구성되어, 전공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26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여학생이 130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특성도 살펴볼 수 있다.

예술고 학생 156명을 사례로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학습선호도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성격유형별 지리 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MBTI®Form GA형 성격유형검사<sup>4</sup>를 활용하였다<sup>1)</sup>. MBTI 성격유형검사는 Jung의 심리유형 이론을 근거로 Briggs와 Meyers에 의해 고안한 것으로 16개 항목 1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BTI는 네 가지 선호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1 참조), 각 지표는 인간의 선호경향을 반영한다. 각 지표는 외향(E)-내향(I), 감각(S)-직관(I),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의 4가지 선호경향이 상호 조합되어 총 1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구분된다. Jung은 인간은 감각(S) 또는 직관(I)을 통해 지각하고, 사고(T) 또는 감정(S)을 통해 판단을 내린다고 보았다. 이처럼 16가지의 성격유형은 각각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각 유형은 독특한 재능(장점)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취약한 부분(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김봉정, 2003).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지리교과에 대한 성적으로 파악하였다. 학업성취도는 2012학년도 총 4회(학기별 2회)에 걸친 지리교과 시험 점수의 평균으로 구했다. 성격유형별 집단 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분



그림 1. MBTI 선호지표의 구성

석하였다. 이와 함께, 집단별 평균 분석, 일원배치 분산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 값의 유의도는  $p < .05$ 의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학습선호도는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의 2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012학년도 지리 수업을 1년 진행한 후, 2013학년도에 학습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 조사는 3개 영역, 18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분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문항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는데, 지리교과에 대한 태도(1~9번 문항), 지리교과의 심미성(10~13번 문항), 지리교과의 사회성(14~18번 문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분석을 토대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및 학습선호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MBTI 선호지표 중의 하나를 지리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로 구분하여, 총 4개 집단에 대하여 각 집단별 5명씩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학습선호도를 고려하여 실시되었고, 질문과 답변은 녹취하였다.

### III.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 1. 예술계고 학생의 MBTI 성격 분석

예술고 학생들에 대한 MBTI 분석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총 156명의 학생에 대한 MBTI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예술고 학생들은 성격적으로 외향적이고, 직관

적 인식을 선호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선호하고, 판단보다는 인식에 따른 생활을 추구하는 성격이 높게 나타난다. 4가지 각 지표별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예술고 학생은 외향형의 성격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69%). 예술계고 학생들은 활동적이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열의가 강하기 때문에 외향형의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외부 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기 때문에 외향적인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인식기능을 나타내는 감각형(S)와 직관형(N)의 구분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며, 판단기능을 나타내는 사고형(T)과 감정형(F)의 구분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예술계 학생의 경우 인식과 판단 관련 성격 유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해 및 생활양식의 지표인 판단형(J)과 인식형(P)의 구분에서는 인식형(P)의 성격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영감을 떠올리며 변화가 매우 빠르다. 또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러한 예술인의 특성에 의해 예술고 학생들의 성격은 판단형(J)보다는 인식형(P)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MBTI 검사 결과는 예술계고 학생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외향형(E)과 인식형(P)의 학생이 많은 것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공연이나 발표회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예술계고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순간순간 표현하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MBTI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연구대상자의 MBTI 4가지 선호경향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감각형(S)-직관형(N) 구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나머지 3가지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표 2 참조)<sup>2)</sup>. 지리교과에 대한 4차례의 시험 성적에 대하여 감각형(S)의 학생들은 평균 70.9점을 보였고, 직관형(N) 학생은 78.2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예술계고 학생들은 직관형일수록 지리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 MBTI 선호 지표별 학생 구성의 비율

선 호 지 표		학 생 수	비율(%)
EI 지표	외향형(E)	107	69
	내향형(I)	49	31
SN 지표	감각형(S)	75	48
	직관형(N)	81	52
TF 지표	사고형(T)	71	46
	감정형(F)	85	54
JP 지표	판단형(J)	51	33
	인식형(P)	105	67

\* n=156

표 2. 4가지 선호경향별 MBTI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비교

집 단		N	M	SD	t	p
EI 지표	외향형(E)	107	74.7	16.2	.076	.940
	내향형(I)	49	74.5	17.9		
SN 지표	감각형(S)	75	70.9	17.2	-2.770	.006
	직관형(N)	81	78.2	15.5		
TF 지표	사고형(T)	71	73.3	16.8	-.968	.335
	감정형(F)	85	75.9	16.6		
JP 지표	판단형(J)	51	74.5	15.3	-.073	.942
	인식형(P)	105	74.7	17.3		

### 3. 학업성취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비교 분석

학업성취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을 보인 감각형(S)-직관형(N)의 지표에 대한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의 집단을 성적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지리교과의 평균을 중심으로 상위와 하위를 구분하였는데, 상위 집단에는 86명이 포함되었고, 하위집단에는 70명이 포함되었다. 감각형(S)-직관형(N)의 성격유형을 상위와 하

위로 구분하여 총 4개 집단에 대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 직관형(N)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집단은 직관형(N)에 속하는 학생 수가 많은 반면에 성적의 하위집단에서는 감각형(S)의 학생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리교과의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직관형(N)의 성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감각형(S)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4. 집단별 학업성취도의 차이 분석

상위집단과 하위집단별 지리교과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인터뷰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는 인터뷰 조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상위집단의 경우 지리교과에 대한 관심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다면, 하위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이후에 지리교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인문지리보다는 자연지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상위집단의 직관형(B) 학생들을 제외하고 지리는 암기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감각형(S)의 경우 추론과 통찰을 요구하

표 3. 학업성취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비교

	N	M	SD	성격유형	N	비율(%)	M	SD	그룹
상위 집단	86	86.7	6.6	감각형(S)	34	21.8	85.6	6.5	A
				직관형(N)	52	33.3	87.4	6.7	B
하위 집단	70	59.9	13.0	감각형(S)	41	26.3	58.8	13.4	C
				직관형(N)	29	18.6	61.5	12.5	D

\* N=156, M=74.7

표 4. 그룹별 지리교과에 대한 특성

내용	상위집단 A 감각형(S)	상위집단 B 직관형(N)	하위집단 C 감각형(S)	하위집단 D 직관형(N)
지리에 대한 관심도	중학교 이후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이후	고등학교 이후
지리 선호 분야	자연지리	인문, 자연지리	자연지리	자연지리
'지리는 암기과목이다'라는 선입견	○	X	○	○
선호하는 수업 방법	강의식	강의식	강의식	강의식
추론과 통찰을 요구하는 문제	싫다	좋다	싫다	좋다
선호하는 평가 방법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주관식	객관식
배우고 싶은 지리과목	세계지리	세계지리	세계지리	세계지리
'지리는 미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라는 생각	○	○	○	○

는 문제에 대해 싫어하는 반면에, 직관형(N)의 학생의 경우 추론과 통찰의 문제를 선호한다고 답하고 있다. 모든 집단에서 지리 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리는 미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감각형(S) 성격의 학생들이 추론과 통찰을 요구하는 지리 문제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 ...그 말은 단순한 사실 암기의 문제이거나 지리적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욱 좋다는 거네.

고○○ 학생: 예! 그런 문제들은 깊게 생각을 안 하고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 더욱 쉽게 풀 수 있어요.

교사: 그러면, 지리시험에서는 지도, 그래프, 도표, 사진, 그림 등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어렵겠네?

고○○ 학생: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지도와 그림, 사진 문제가 무조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글로만 돼 있는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고○○ 학생: 그니까...글로만 돼 있어도 너무 복잡하고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는 싫고, 공부를 하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좋아요. 그리고 지도나 사진, 그림으로 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괜찮은데, 그걸 통해 복잡하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서 오랜 시간동안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는 싫어요. 그러한 유형의 문제여도 명확한 지식을 물어보고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학업성취도가 높은 상위집단의 직관형(N)의 경우에만 지리과목은 암기과목이 아니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았다. 이는 성격에 따라 지리교과를 대하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반영한다.

교사: 작년의 4번의 지리 시험에서 성적이 좋았는데, 지리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 학생: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공부할 때 무조건 외우지 않고 이해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사: 어떤 학생들은 지리 과목을 암기과목으로 말하는데, 최○○는 틀리게 말하네...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까?

최○○ 학생: 당연히 어느 정도는 외우는 부분이 필요해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외워야 하는데 모든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울 수도 없어요.

하위집단의 감각형(S) 학생의 경우 지리에 대한 통찰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 2012년 4번의 지리 시험을 봤는데, 지리 성적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왜 낮게 나왔을까?

장○○ 학생: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책과 노트만을 보고 암기만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응용해서 나오기도 하고 꼬아서 나오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암기한 내용을 응용을 못했어요.

교사: 그러면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일까?

장○○ 학생: 수업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지형들에 대해 배우는데,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제 보고 나면 이해가 되요. 예를 들어 바닷가의 지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됐어요. 지금도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도 바닷가의 사빈, 사구, 해식애, 시스텍 등은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하위집단의 직관형(N) 학생의 경우 시험 위주의 지리 수업보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리수업을 원하고 있다. 직관형 성격의 경우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하위집단의 직관형(N)에 속하는 경우 지리교과의 중요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다음의 하위집단 직관형(N) 학생과의 인터뷰는 이러한 성격의 특성을 반영한다.

교사: 고등학교 지리 수업 이후에 관심도 많이 생기고 강의식 수업 방법으로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 학생: 지리는 사실 암기 과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암기를 하고 외우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수업시간에는 열심히 듣고 재밌어도 막상 시험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사: 지리 수업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싶어?

김○○ 학생: 시험 위주의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배우고 싶어요. 여행을 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구나 문화물에 대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며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은 지리교과가 자신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들, 일상적인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다루기를 선호하였다. 지리 수업이 세계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였고, 여러 나라의 기후와 지형, 문화, 음식, 가옥 등에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술계고 학생들의 호기심이 풍부하고 진취적, 독창적, 창의적인 성격 특성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성향은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리 교육과정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모든 고등학생들을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적용하는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예술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예술계 고등학교의 특수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가능성,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지리에 대한 관심이 없던 학생도 교사의 수업을 듣고 지리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지리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지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사의 지리교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각형(S)은 오감에 의존하기에 구체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더욱 선호하고, 직관형(N)은 통찰과 도약, 비유가 뛰어나기에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도, 그래프, 도표를 더욱 선호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로 학생들은 지리수업에서 사진과 동영상, 지도, 그래프, 도표를 모두 사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길 원하였다. 중요한 것은 특정 형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모든 소재와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관형(N)과 감각형(S)의 학생 모두 지도 보는 방법을 어려워하였다. 지리교과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적 도해력이 부족한 것은 중학교에서부터 지도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도 가장 활용부분이 높은 분야가 지도를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리수업은 지리부와 함께 학생들이 지리적 도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리교과는 학생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해주므로 예술계고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더욱 증진시켜줄 수 있다. 국악이나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마다 음악에 대한 스타일과 관점, 담고 있는 의도가 다르므로 지리과목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 배운다면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감정과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도 그 나라의 문화와 지리적 특성을 알고 있다면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야외로 나가 스케치를 많이 하고 영감을 얻는데, 그 때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가미하여 경관과 풍경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각 그룹을 대표하는 학생들을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술계고 학생에 맞는 지리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독창성, 영감을 증진시키는데 지리 교과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이다.

#### IV.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선호도의 차이

예술계 학생들의 지리교과에 대한 학습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총 18개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리교과의 학습선호도는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지리교과에 대한 태도’, ‘지리교과의 심미성’, ‘지리교과의 사회성’으로 구분하였다(표 5 참조). ‘지리교과에

표 5. 지리교과 학습선호도의 구분

구분	세부 항목	
	번호	내용
지리교과에 대한 태도	1	지리를 학습하면 두뇌회전이 잘 되어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다.
	2	지리는 많은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3	지리는 이유 없이 싫다.
	4	지리 시간이 있기에 공부한다.
	5	지리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6	지리는 암기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
	7	지리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8	지리는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할 만큼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9	앞으로도 지리부도를 계속해서 자주 사용할 것이다.
지리교과의 심미성	10	지리는 단계별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어렵다.
	11	지리를 잘하면 다른 과목들도 잘할 수 있다.
	12	지리 학습 내용은 논리적이다.
	13	지리는 확실하며 애매하지 않다.
지리교과의 사회성	14	지리는 성인이 되어도 배우고 싶다.
	15	지리는 사회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6	지리를 공부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지리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18	지리는 예술가에도 필요하다.

표 6. 지리교과 학습선호도 조사 결과

질문	성격유형	N	M	T	P	질문	성격유형	N	M	T	P
1	외향형(E)	107	3.15	0.63	0.53	2	외향형(E)	107	3.15	1.65	0.10
	내향형(I)	49	3.06				내향형(I)	49	2.90		
	감각형(S)	75	3.07	-0.81	0.42		감각형(S)	75	3.08	0.13	0.90
	직관형(N)	81	3.17				직관형(N)	81	3.06		
	사고형(T)	71	3.13	0.07	0.95		사고형(T)	71	2.94	-1.64	0.10
	감정형(F)	85	3.12				감정형(F)	85	3.18		
	판단형(J)	51	3.12	-0.44	0.97		판단형(J)	51	3.12	0.19	0.65
	인식형(P)	105	3.12				인식형(P)	105	3.05		
3	외향형(E)	107	2.10	-0.11	0.92	4	외향형(E)	107	3.03	-0.20	0.84
	내향형(I)	49	2.12				내향형(I)	49	3.06		
	감각형(S)	75	1.99	-1.38	0.17		감각형(S)	75	2.96	-0.98	0.33
	직관형(N)	81	2.22				직관형(N)	81	3.11		
	사고형(T)	71	2.06	-0.56	0.58		사고형(T)	71	3.13	1.05	0.30
	감정형(F)	85	2.15				감정형(F)	85	2.96		
	판단형(J)	51	2.04	-0.57	0.57		판단형(J)	51	2.94	0.67	0.38
	인식형(P)	105	2.14				인식형(P)	105	3.09		
5	외향형(E)	107	3.06	0.20	0.84	6	외향형(E)	107	3.41	0.69	0.49
	내향형(I)	49	3.02				내향형(I)	49	3.31		
	감각형(S)	75	3.07	0.26	0.80		감각형(S)	75	3.60	3.31	0.01
	직관형(N)	81	3.02				직관형(N)	81	3.17		
	사고형(T)	71	2.93	-1.30	0.19		사고형(T)	71	3.45	0.95	0.35
	감정형(F)	85	3.14				감정형(F)	85	3.32		
	판단형(J)	51	3.02	-0.22	0.83		판단형(J)	51	3.35	-0.25	0.80
	인식형(P)	105	3.06				인식형(P)	105	3.39		



표 6. 지리교과 학습선호도 조사 결과 (계속)

질문	성격유형	N	M	T	P	질문	성격유형	N	M	T	P
7	외향형(E)	107	2.91	0.17	0.87	8	외향형(E)	107	3.60	0.93	0.36
	내향형(I)	49	2.88				내향형(I)	49	3.47		
	감각형(S)	75	2.83	-0.84	0.41		감각형(S)	75	3.44	-1.77	0.08
	직관형(N)	81	2.96				직관형(N)	81	3.67		
	사고형(T)	71	2.92	0.20	0.84		사고형(T)	71	3.56	0.08	0.94
	감정형(F)	85	2.88				감정형(F)	85	3.55		
	판단형(J)	51	2.96	0.54	0.59		판단형(J)	51	3.61	0.54	0.59
인식형(P)	105	2.87	인식형(P)			105	3.53				
9	외향형(E)	107	2.90	-0.56	0.57	10	외향형(E)	107	3.23	0.43	0.67
	내향형(I)	49	2.98				내향형(I)	49	3.16		
	감각형(S)	75	2.87	-0.80	0.43		감각형(S)	75	3.29	1.04	0.30
	직관형(N)	81	2.98				직관형(N)	81	3.14		
	사고형(T)	71	2.93	0.09	0.93		사고형(T)	71	3.14	-0.85	0.39
	감정형(F)	85	2.92				감정형(F)	85	3.27		
	판단형(J)	51	2.92	-0.02	0.99		판단형(J)	51	3.27	0.79	0.56
인식형(P)	105	2.92	인식형(P)			105	3.18				
11	외향형(E)	107	2.82	-0.11	0.91	12	외향형(E)	107	3.23	-1.22	0.23
	내향형(I)	49	2.84				내향형(I)	49	3.39		
	감각형(S)	75	2.81	-0.22	0.83		감각형(S)	75	3.27	-0.25	0.80
	직관형(N)	81	2.84				직관형(N)	81	3.30		
	사고형(T)	71	2.82	-0.15	0.88		사고형(T)	71	3.32	0.65	0.52
	감정형(F)	85	2.84				감정형(F)	85	3.25		
	판단형(J)	51	2.82	-0.39	0.97		판단형(J)	51	3.39	1.31	0.19
인식형(P)	105	2.83	인식형(P)			105	3.23				
13	외향형(E)	107	3.24	0.71	0.48	14	외향형(E)	107	2.76	0.93	0.35
	내향형(I)	49	3.14				내향형(I)	49	2.61		
	감각형(S)	75	2.96	-3.85	0.00		감각형(S)	75	2.63	-1.13	0.26
	직관형(N)	81	3.44				직관형(N)	81	2.79		
	사고형(T)	71	2.89	-4.83	0.00		사고형(T)	71	2.66	-0.63	0.53
	감정형(F)	85	3.48				감정형(F)	85	2.75		
	판단형(J)	51	3.16	-0.58	0.56		판단형(J)	51	2.65	-0.62	0.54
인식형(P)	105	3.24	인식형(P)			105	2.74				
15	외향형(E)	107	3.55	1.52	0.13	16	외향형(E)	107	2.79	0.74	0.46
	내향형(I)	49	3.33				내향형(I)	49	2.67		
	감각형(S)	75	3.39	-1.32	0.19		감각형(S)	75	2.56	-2.68	0.00
	직관형(N)	81	3.57				직관형(N)	81	2.93		
	사고형(T)	71	3.24	-3.30	0.00		사고형(T)	71	2.76	0.14	0.89
	감정형(F)	85	3.68				감정형(F)	85	2.74		
	판단형(J)	51	3.41	-0.69	0.49		판단형(J)	51	2.31	-4.65	0.00
인식형(P)	105	3.51	인식형(P)			105	2.96				
17	외향형(E)	107	3.40	2.72	0.01	18	외향형(E)	107	3.03	0.34	0.74
	내향형(I)	49	2.98				내향형(I)	49	2.98		
	감각형(S)	75	3.27	-0.03	0.97		감각형(S)	75	2.93	-1.16	0.25
	직관형(N)	81	3.27				직관형(N)	81	3.09		
	사고형(T)	71	3.17	-1.25	0.22		사고형(T)	71	3.01	0.02	0.99
	감정형(F)	85	3.35				감정형(F)	85	3.01		
	판단형(J)	51	3.22	-0.51	0.61		판단형(J)	51	2.98	-0.34	0.73
인식형(P)	105	3.30	인식형(P)			105	3.03				

대한 태도'의 범주는 지리에 대한 관심, 흥미, 선입견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교과의 심미성'

의 범주는 지리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면서 구성되었고, '지리교과의 사회성' 범주는 지리의 사회적 활용과

가치에 초점을 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8개 항목에 대한 지리교과의 학습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은 5개에 불과하였다(표 6참조). 즉,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리교과에 대한 선호도는 성격유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리교과의 사회성을 묻는 질문 5개 중 3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상 생활과 관련된 활동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지리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세부 범주별 학습선호도와 성격유형의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리교과의 태도 범주는 성격유형과 지리교과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지리는 암기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감각형(S)-직관형(N)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는 예술고 학생들이 지리를 암기 위주의 과목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암기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도 반영한다. 지리가 어렵거나 싫다거나 등의 질문에서 유의미한 정도가 낮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술고 학생들의 지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리교과의 심미성에 대한 질문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의미한 수준을 보인 것은 13번 항목의 ‘지리는 확실하며 애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리교과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각형(S)-직관형(N), 사고형(T)-감정형(F)의 성격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관형(N) 학생일수록 지리교과는 쉽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직관형일수록 정보에 의존하는 학습태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항목의 질문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또 다른 성격유형은 사고형(T)-감정형(F)이다. 사고형(T)보다 감정형(F)의 학생일수록 지리가 애매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지리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자연지리분야도 있지만 현실세계의 의미와 해석을 강조하는 인문지리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일수록 지리적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리교과의 사회성에 대한 질문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예술고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지리를 밀접한 관계 속에 인식함을 반영한다고 풀이된다. ‘지리는 사회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사고형(T)-감정형(F)의 성격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예술고 학생들은 지리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특히 감정형의 학생들이 지리와 사회발전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리를 공부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유의미한 결과는 감각형(S)-직관형(N)에서 나타났다. 감각형(S)의 학생보다 직관형(N)의 학생에서 평균이 높게 나왔다. 이는 직관형(N)의 학생일수록 지리와 삶의 재미를 연관시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리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외향형(E)-내향형(I)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외향형(E) 성격일수록 더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는데, 예술고 학생의 경우 외향형(E)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외향적 성격일수록 지리에 대한 관심이 크고 특히 일상생활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지리에 대한 선호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격유형과 학습선호도에 대한 조사는 일부 항목의 일부 성격유형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화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나타낸 항목의 성격유형에 대한 분석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격유형에 따라 지리교과에 대한 관심, 이해 그리고 사회성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는 예술고 학생처럼 외향형(E), 인식형(P)의 비율이 높은 경우 이러한 성격유형을 고려할 경우 지리에 대한 관심과 학습의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학생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예술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 개발에 중요하다는 가정하에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학습선호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Jung의 심리유형론에 기초를 두고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격유형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점이 시사하는 것은 수업환경과 교수법에 따라 학생들의 지리교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예술고 학생들은 내향적 성격보다 외향적 성격이 많고, 감각형 성격보다는 직관형 성격이 많으며, 사고형 성격보다 감정적 성격이 많고, 판단형 성격보다 인식형 성격이 많다. 특히 외향적인 성격과 인식형의 성격이 많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술분야가 공연이나 발표회 등 대중과의 접촉이 많고, 창의성과 감수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MBTI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감각형(S)-직관형(N)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감각형(S) 학생보다 직관형(N) 학생의 지리교과 평균성적이 높다는 것은 지리교과의 이해에서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논리적 이해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감각형(S)-직관형(N)에 속한 학생을 지리교과 평균을 중심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성취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핀 결과, 성적 상위집단의 직관형(N)을 제외하고는 지리 시험에서 추론과 통찰을 요구하는 문제를 싫어함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의 학생에 대한 인터뷰 결과, 감각형(S) 학생은 지리 이해를 위한 응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직관형(N) 학생은 시험위주의 수업방식보다는 사진, 지도, 동영상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리 수업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지리에 대한 선호도는 교사의 수업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지리교과의 학습선호도와 MBTI 성격유형의 관계는 아주 큰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지리교과의 사회성 즉, 일상생활에서 지리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성격유형과 학습선호도 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술고 학생들은 지리와 일상세계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체적으로 외향형(E) 성격일수록 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직관형(N) 성격일수록 지리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며, 감정형(F) 학생일수록 지리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성격유형은 지리교과의 학업성취도나 학습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리교과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예술계 학생들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학습방법 및 평가양식의 개발, 학습상당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 선호하는 학습방법과 학업성취 상의 내재된 약점들을 미리 인식하고 취약점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사들은 예술계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업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식적인 성향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좋은 교수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예술계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지리교과의 학업성취 및 학습선호를 살핀 것으로 성격에 따른 지리교과의 흥미와 관심이 달라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즉, 지리교과 교수방식의 개발에서 예술계 학생의 성격유형을 고려한다면 지리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 註

- 1) 한국어판 MBTI는 9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가채점용(GS)과 컴퓨터채점용(GA) 형태가 있다. 본 연구는 컴퓨터채점용을 활용하였다.
- 2) 성격유형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이순주(2013) 연구에서도 교양교과목 성적을 성격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판단형(P)-인식형(I)의 지표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참고문헌

- 김봉정, 2003, “간호사관생도의 성격유형과 혼용성적 MBTI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군진간호연구*, 21, 240-269.
- 김혜경, 1996, “성격유형과 학습기술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미, 2012, “경찰행정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핵심역량,”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221-239.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제3판)」, 일조각.
- 이순주, 2013, “공과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4(2), 189-212.
- 이은주, 2012, “MBTI 성격유형과 디자인 학습 성취도 실증 연구,” *디자인학연구*, 24(4), 13-22.
- 장문선·곽호안·고재홍·전종국·이영숙 공역, 2014, 「성격심리학 제 10판」, 박학사.(Ryckman, R., 2013, *Theories of Personality*, 10th Edition, Andover: Wadsworth)
- 정경연, 1993, “C-MBTI에 나타난 국민학생의 MBTI 선호경향과 지능 및 학업성취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경·김명수·유연자·김수옥·원대영, 2007,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 상관성,” *간호행정학회지*, 13(4), 516-525.
- 조철기, 2014, 「지리교육학」, 푸른길.
- 한은경·김재철, 2007,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MBTI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연구*, 14(2), 149-172.
- Allport, G.,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Holt, New York: Rinehart & Winston.
- Guilford, J., 1959, *Personality*, McGraw-Hill, New York.
- Jung, C.G., 1936, *Psychological Ty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berts, M, 1996, Teaching styles and strategies, in Kent, A., Lambert, D., Naish, M., and Slater, F. eds., *Geography in Education: Viewpoints on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1-259.

교신 : 박철웅,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parkcw@chonnam.ac.kr)

Correspondence : ChulWoong Park, 500-757, 77 Yonghong-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parkcw@chonnam.ac.kr)

투 고 일: 2014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일  
투고확정일: 2014년 6월 5일